

[기아]인센티브 최소화 전략 통했다... 기아 vs 경쟁사 차별화 포인트(2024년_2Q)

종목명 : 기아 (000270)

컨콜일 : 24년 7월 넷째주

Key points

✦ 핵심 결론

- 믹스 개선, 가격 효과, RV·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확대에 기반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 달성

NEW 이번 콜 신규 업데이트 포인트

- RV 중심 믹스 개선 및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가 수익성 상승 견인
- EV 수익성 약 10% 유지하며 EV3 중심 전환 예고
- 자사주 100% 소각 결정, 10월 중 실행 예정

1. 주가 상승 모멘텀

-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 및 RV 중심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제고
- 미국 메타 플랜트 및 이보 플랜트 가동으로 글로벌 생산능력 강화
- 자사주 100% 소각 결정 통한 주주환원 정책 신뢰 제고

2. 주가 하락 리스크

- 하반기 재료비 감축폭 둔화 및 인건비 상승 부담

- 글로벌 EV 수요 둔화 및 전동화 전략 전환 리스크
 - 서유럽 등 일부 권역의 판매 부진 지속 가능성
-

3. 이번 콜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3.1. 실적 변화 요인

- ASP 상승과 믹스 개선 효과, RV·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구조에 힘입은 실적 성장
- 재료비 감소 및 우호적 환율 효과도 일부 기여

3.2. 믹스/수주/가동/비용 등 핵심 드라이버

- RV 및 전동화 트림 믹스 확대
- 인센티브 증가에도 업계 최저 수준 유지
- 외화 판매보증 총당금 반영에 따른 판관비 증가

3.3. 다음 분기/향후 일정

- 하반기 K4·EV3 등 신차 투입 예정
 - 화성 이보 플랜트, 미국 메타 플랜트 가동으로 생산 확대
 - 2025년 인도 증설 및 신차 대응 계획
-

4. 실적 현황

4.1. 분기 실적 현황

- 매출액: 27조 5,680억 원 (전년 대비 +5%)
- 영업이익: 3조 6,440억 원 (전년 대비 +7.1%)
- 영업이익률: 13.2% (사상 최대 분기 기준)

4.2. 사업부별 실적

- 권역별 도매판매: 79.5만 대 (전년 대비 -1.6%)
- 북미: +6.4%, 유럽: -12.5%

4.3. 실적 요약

- 믹스 개선 효과(RV 확대 +550억, 지역 믹스 +290억, 가격효과 +1,160억)
- 인센티브 +4,710억 증가했으나 업계 최저 수준 유지

4.4. 재무 현황

- 매출 원가율: 75.9% (역대 최저)
 - 판관비율: 10.9% (외화 판매보증 총당금 영향)
 - 부채비율: 69.3% (전년말 대비 -3.9%p)
-

5. 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5.1. 시장 현황(업황)

- EV 수요 둔화 및 고금리 지속으로 산업 성장 둔화
- 내수는 개소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산업 수요 -9.5%

5.2. 신사업 진행 상황

- SDV 전환을 위한 E&E 아키텍처, OS, 미들웨어 개발 중
- 2026년부터 양산형 모델 출시 예정

5.3. 투자 계획

- 화성 이보 플랜트: PBV 생산
- 미국 메타 플랜트: 하반기 가동
- 인도: 2025년 신차 대응 증설 계획

5.4. 생산/거점/내재화/증설 관련 내용

- 중국 공장: 수출 거점 전환 → 2Q부터 BP 이상 실현
 - 하반기 EV3 출시 및 생산 공백 해소 계획
-

6. 회사 소개

6.1. 주주현황

- 자사주 100% 소각 계획 (10월 중)

6.2. 사업소개

- 내연기관차, 전동화차(EV/HEV), PBV 사업 추진

6.3. 밸류체인 및 고객사

- 글로벌 주요 시장(북미, 유럽, 인도 등)에 도매/소매망 확보

6.4. 핵심 경쟁력

- RV 및 하이브리드 제품 경쟁력
- 믹스 및 가격 전략 기반 수익성 중심 영업
- 낮은 인센티브 구조 유지

7. Q&A

Q. 텔루라이드 리콜 비용 반영 여부와 하반기 믹스 개선 지속 가능성?

A. 텔루라이드 리콜 비용 약 900억 원 반영. 믹스 개선은 단순 SUV 외에 전동화·디지털 트렌드에 따른 트림 전략에 기반. 상승세는 둔화될 수 있으나 방향성은 유지.

Q. 미국 인센티브 유지 비결 및 전기차/자율주행 전략은?

A. EV9 현지 생산으로 보조금 활용해 인센티브 부담 완화 계획. EV6·EV9 전략적 대응 유지. SDV 전환 위한 아키텍처 개발 중이며, 2026년부터 양산 적용 예정.

Q. 2025년 생산능력(CAPA) 확대 계획 및 미국 대선에 따른 관세 리스크 대응은?

A. 화성 이보 플랜트, 미국 메타 플랜트 가동으로 캐파 확대. 인도도 신차 대응 위한 증설 준비 중. 리쇼어링과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 대응.

Q. EV 수익성 높은데, 점유율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는?

A. EV 수요 둔화 상황에서 무리한 확대보다 하이브리드 중심 유연한 대응이 최선. EV3 같은 볼륨 모델부터는 적극적 전략. 현재 EV 수익성은 환율 포함 약 10%.